



본 내용은 대한결핵협회 홈페이지 나눔터 <결핵상담실>에 게재된 상담 내용을 발췌하여 정리한 것입니다. 결핵 치료에 대하여 궁금하신 점이 있거나 상담내용을 보시려면 <http://www.knta.or.kr>을 이용해 주세요.

상담 □ 김애중 원장(대한결핵협회 전북지부 복심자의원)

Q 임파선염 결핵을 판정받고 5개월째 약을 복용하고 있습니다. 처음엔 크기가 10cm 정도 였는데 약을 복용한 후 커졌다 작아졌다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보기에 너무 안 좋아서 빨리 낫게 하고 싶은데 방법이 없을까요? 혹시 임파선염이 아닌 다른 증상이 아닐지 걱정됩니다.

A 임파선결핵은 특성상 잘 듣고 있는 약제를 복용하는 중에도 크기가 커지기도 하고 쪼아 터지기도 합니다. 수술로 절제해 낸 경우에도 그 상처의 회복이 매우 느리고 움푹 꺼지고 검붉은 흔적이 남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매우 오랜 시간이 경과 해서야 호전양상을 보이게 되므로 좀 더 느긋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빨강게 부어올라 터지기 직전이라면 주사기로 염증을질을 천자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터지면 상처 회복도 늦고 드레싱의 번거로움이 있으며 이차 세균감염이 우려되기 때문입니다.

Q 두달 정도 기침이 계속되어 감기인줄 알고 넘어갔는데 기침이 심해지고 가슴이 아파 병원에 갔다가 결핵진단을 받았습니다. 의사선생님께서 2주 정도 쉬면서 약을 먹으라고 하셨습니다. 지금 약을 먹은지는 3일 정도 되었구요. 2주후 전염성이 없어지면 예전처럼 일을 계속해도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A 말씀하신 증상들은 약 복용 후 초기에 주로 볼 수 있는 것들로 큰 문제가 될 정도는 아닌 것 같습니다. 서서히 좋아져서 대개는 길어도 2개월 이후에는 약으로 힘든 상황은 거의 없게 됩니다. 2주 정도는 외출을 삼가하시는 것도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다는 점에서 바람직할 수 있습니다. 가족들은 같이 식사하셔도 소화기계를 통해서 전염은 거의 없으므로 별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Q 결핵약을 먹은지 7주 정도 됐는데, 머리가 너무 무겁고 멍한 상태입니다. 처음에는 편찮았는데, 요즘은 하루 종일 이런 상태가 지속되다보니 활동하기가 힘이 듭니다. 두통약도 먹어보았지만, 두통은 아닌지 그다지 효과도 느끼지 못합니다. 방법이 없을까요?

A 결핵약 부작용으로 그러한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너무 심해서 활동의 제약이 많다면 투약시간을 취침 전으로 바꾸는 방법이 있습니다. 조금 빨리 저녁식사를 마치고 이후부터는 금식을 해서 적어도 4-5시간 경과 후 결핵약을 드시고 주무시면 됩니다. 중요한 것은 충분한 금식시간을 유지한 후에 약을 복용해야 적정량의 약물흡수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Q 결핵약을 다 복용하고 6개월 정도가 지났는데 머리카락이 많이 빠집니다. 지속적인 탈모인지 걱정이 됩니다. 어디서 상담을 받아야 하나요?

A 결핵약을 드시는 중에도 탈모가 있다가 투약 중단 6개월인 지금 시점까지 진행되고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결핵약제가 호르몬 변화를 일으키면서 아주 드문 경우에 탈모가 발생하기도 하는데 대부분 약 중단 후 호전을 보입니다. 탈모 영역은 피부과이고 많이 신경 쓰이는 현상이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Q 전 임신 4개월에 유산을 하고 유산 한 달 후 결핵에 걸렸다는 걸 알게 되어 지금 약을 복용하고 있습니다. 결핵은 중학교 1학년 때 걸린 적이 있었는데 1년간 정도 약을 복용하고 완치되었습니다. 지금 거의 4개월째 약을 먹고 있는데 호전이 되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약 3주전부터 오른쪽 손이 유난히 저리고 쉽게 쥐가 납니다. 결핵약 부작용인가요?

A 아이나가 말초신경염을 일으킬 수가 있어 이를 예방하기 위해 비타민 B6가 적어도 10mg이 든 영양제를 투여하게 됩니다. 일단 처방에 이같은 영양제가 들어 있는지 확인해 보시고 들어 있다면 약물로 인한 증상은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Q 지난 3월 결핵성늑막염을 진단받고 치료 7개월째 되어가고 있는 43세 주부입니다. 이제 물은 거의 다 빠졌다고 하는데요, 아직도 숨을 크게 들이쉬거나 하품을 하면 오른쪽 갈비뼈 안쪽이 당기면서 많이 아픕니다. 혹시 늑막비후나 늑막유착은 아닌지 걱정이 됩니다. 담당 선생님은 속 시원한 답변은 안 해주시니 답답합니다. 저와 같은 경우 수술이 도움이 될까요?

A 흉부CT검사를 하시면 늑막상태에 대한 것을 어느 정도 알 수 있습니다. 늑막염으로 인해서 평상시 호흡으로는 이상이 없다가도 심호흡이나 기침, 하품을 할 때 통증이 올 수 있는데 점차 빈도가 줄어들게 되므로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늑막박피수술은 부담 없이 쉽게 할 수 있는 간단한 수술은 아니므로 폐기능 저하가 크거나 농흉으로 진행된 경우가 아니라면 우선적 고려할 상황은 아닙니다.